

##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필리핀 국내 이주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지역사회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과 사업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는 점진적 또는 급진적 환경 변화를 초래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기반의 붕괴와 주거 불안정은 국내이주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이주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취약성의 복합적 문제를 동반하는 등 이주민들의 정착 이후의 안정적 삶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필리핀은 지형학적 특성상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 빈도가 높고, 그로 인해 국내 이주민(IDPs)의 수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급진적 기후재난 피해지역인 타클로반(Tacloban)과 점진적 기후재난 피해지역인 바탕가스(Batangas) 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이주민 재정착 지역사회의 취약성 다면적 취약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문헌분석, GIS 기반 공간분석, 가구 설문조사 및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질적조사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현장조사를 통해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필리핀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이주민의 통합적인 삶의 여건과 취약성, 사회 적응 과정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한 가구들은 생계불안정(소득 감소, 실업률 증가, 고용 불안정 등), 보건 취약성(의료 서비스 부족, 감염병 위험 증가, 정신 건강 문제), 사회적 배제(지역사회 네트워크 단절, 정부 및 비정부 기관 지원 부족), 주거 불안정(정착촌 인프라 부족, 임시 거주지 취약성 등), 재난 대비 역량 부족(재난 경고 시스템 미비, 재해 예방 정책 부재)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필리핀 기후변화 국내이주민(IDPs)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3가지 핵심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내 기후 적응형 인프라 구축을 통해 물리적 회복력을 증진한다. 이를 위해 ▲홍수 대비 인프라 개선, ▲식수 및 위생 관리 인프라 구축, ▲기후적응적 주거 및 대피 인프라 건축, ▲친환경 폭염 저감형 인프라 구축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정부 및 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차원의 자립성을 확보한다. 이는 ▲정부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 정보 제공 및 소통 채널 구축, ▲지역사회 주도형 공동정책 개발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 지원 및 사회

적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기적인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한다. 주요활동으로 ▲이주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심리적 회복을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 ▲ 기후적응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직업훈련 및 기술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필리핀 기후변화 국내 이주민(IDPs)의 복합적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별가구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실질적이며 지속가능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정책 전략을 3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기후 이주민들의 모든 취약성의 기저에 작동하는 생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민간주체가 제공하는 생계 훈련이 지속적 소득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생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과거 다양한 형태의 기후재난으로 인해 이주를 경험하였던 국내 이주민들이 재정착 이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기후재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장기적인 기후변화 전망을 고려한 체계적인 재난 대응 전략 수립과 이주민들의 속성과 맥락을 반영한 대응수단과 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 이주민들의 정부 제공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이주민들의 재난-이주-정착의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실질적 수요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형성 및 실행과정에서의 이주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국내이주민 지역사회에 관한 포괄적 시각과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필리핀 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는 필리핀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이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실행 전략마련에 기여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민들의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 이주민과 호스트 커뮤니티 간 상호작용, 각 지역의 맥락을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 모델구축, 그리고 정부 및 국제 사회와의 협력 체계 발전 가능성에 관해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